

간절한 합격의 꿈 날아간다... '대학 이중등록' 주의보

이중등록시 원칙적으로 입학 취소 등록금 환불 받아야 등록 취소 인정
“일시적 이중등록, 제재 대상 아냐”

다음 달 초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 합격해 불거지는 '이중 등록' 문제를 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 추가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두 개 대학 모두 입학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등록 기준=등록금 입금...환불 여부에 이중 등록 여부 판단

6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지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열린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담하고 있다. /뉴스시

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지원에서 이중등록은 왕왕 발생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인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내고 있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지원 일정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내달 8일부터 지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지원이 이어지는데, 이때 지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지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특히 지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의 경우 당일 21시까지만 대학이 지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되면서 대학에 따라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중등록, 다른 학생 기회 박탈 문제 발생

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

장이자.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지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게 좋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지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소장은 “정시 지원기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해 다른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

코로나 경보 '심각' 해제시까지 연장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추가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주 또는 주소주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

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로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생계비 2회를 추가로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고통받는 위기가구에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취약 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내달 '서울런' 회원모집 재개

수험생 위한 정시 자료집 제공
10대 진로코칭 강좌 등 마련

서울시는 내달 중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회원 모집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기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을 충족하는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법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울런에 가입한 학생들은 8개 학습사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무료로 강의를 무제한 들을 수 있다. 또 일대일 멘토링으로 학습관리부터 진로상담까지 종합적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다.

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2022~2023년도 정시(입시) 자료집'을 제공한다. 전·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서울런 자체 콘텐츠로, 2023년도 대입전형 일정과 주

요 특징, 고른기회 특별전형, 전문대학 유망학과 정보 등 입시 준비생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총망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 진로를 고민하는 10대를 위한 '진로코칭' 강좌,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지낸 교육전문가 진동섭 선생님의 '썩 공부법 특강'도 마련됐다. 회원 가입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 같이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콘텐츠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입시년 새해에는 '서울런'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한층 더 도움되는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서울런의 콘텐츠·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 라방으로 학부모 소통

대학 발전 방향 함께 모색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동훈 총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에서 양방향 소통형 온라인 생방송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ST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라이브 방송은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제'의 일환이다.

이번이 네 번째 쌍방향 소통형 생방송으로, 서울과기대는 올해 ▲첨단학과를 만나다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취업성공의 A to Z 등을 제작 및 방송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과기대 동문 출신인 이 총장이 방송 참여자들과 유쾌



(왼쪽부터) 이동훈 총장, 방송인 노정렬, 김지유 아나운서가 학내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생방송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울과기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유 아나운서와 개그맨 노정렬의 진행으로, 사전 선정된 재학생, 학부모 및 서울과기대 구성원들이 이 총장과 온라인으로 양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귀농,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오는 27일까지 흥천·제천·영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지역별 모집 현황과 선발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희사이버대-파리크라상

재·졸업생에 기업대학 기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올해부터 SPC 그룹 파리크라상(기업대학)과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해 '파리크라상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에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수준의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 역량이 검증된 대상자를 사내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파리크라상 기업대학은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 기회 제공 ▲강사진 강의 ▲무상 교육훈련 제공 ▲사업부 브랜드 설명회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한 취업지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수요자에게는 파리크라상 정규직 입사 기회가 부여된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20일 온앤오프 취업캠프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22 상반기 채용을 대비해 오는 20일과 21일 온앤오프 취업캠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캠프는 2022년 채용 트렌드, 취업 준비 방법, 직무특강&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오프라인 캠프는 온라인 캠프 내용에 추가로 실제 취업준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직무별 입사서류 제출과 모의 면접을 통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캠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불룸비스타 호텔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은 1일차에만 이뤄진다. 온라인은 20일 오후 1시부터 6시,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